

11장 원시 값과 객체의 비교

11.0 머릿말

-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
 - 원시 타입
 - 객체 타입
- 두 타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다르다.
 - 변경 불가능한 값(원시)과 가능한 값(객체)
 - 변수(메모리)에 실제 값이 저장 vs 참조 값이 저장
 - 원시 값 변수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면 원본의 원시 값이 복사되어 전달(값에 의한 전달) vs 객체는 참조 값이 복사되어 전달(참조에 의한 전달)

1. 변경 불가능한 값

- 한번 생성된 원시 값은 읽기 전용 (Read Only)
- 변수와 값
 -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확보한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
 - 같은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로서 표현식이 평가되어 생성된 결과
 - 원시 값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값에 대한 진술이다!!
 - 변수는 언제든지 재할당을 통해 변수 값을 변경(교체)할 수 있다.
 - 변수의 상대 개념인 상수는 재할당이 금지된 변수를 뜻함
 - 상수와 변경 불가능한 값을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
- 원시 값 재할당
 - 원시 값을 할당한 변수에 새로운 원시 값을 재할당하면 원래 있던 메모리의 값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
 - 새로운 원시 값에 대한 새로운 메모리 값을 확보하고 변수는 새롭게 재할당된 원시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.

11.1 원시 값

2. 문자열과 불변성

- 문자열은 문자 1개당 2바이트 ————— 1000000바이트 동일한 8바이트
- 문자열은 유사 배열 객체이면서 이터러블이므로 배열과 유사하게 각 문자에 접근 가능
 - ** 유사 배열 객체란? 배열처럼 인덱스로 프로퍼티 값에 접근할 수 있고 length 프로퍼티를 갖는 객체
 - For문 순회가능

3. 값에 의한 전달

- 변수에 변수를 할당했을 때 어떻게 될까?
 - Ex) var score = 80; ————— 변수의 원시 값이 복사 되어 전달된다. 이를 값에 의한 전달
 - var copy = score;
 - Score변수와 copy변수의 값 80은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별개의 값! ————— score를 100으로 재할당해도 copy는 그대로 80 ————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!!
 - 파이썬은 같은 값의 메모리주소를 참조하다가 재할당이 일어나면 그 때 새로운 값을 생성
- 엄격하게 표현하면 변수에는 값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"공유에 의한 전달"이라고도 한다.
 - 식별자는 값이 아니라
 - 메모리 주소를 기억
 - 식별자는 메모리 주소에 붙인 이름

0. 머릿말

- 객체는 원시 값과 같이 확보해야 할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사전에 정해 둘 수 없다. ————— Because => 프로퍼티 개수가 정해지지 않으며, 동적으로 추가 삭제, 프로퍼티 값에 제약 X
- 원시 값과 다른 방식으로 동작
- **자바스크립트 객체의 관리 방식
 - Js 객체는 프로퍼티 키를 인덱스로 사용하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————— 대부분 js 엔진은 해시 테이블과 유사하지만 높은 성능을 위해 일반적인 해시 테이블보다 나은 방법으로 객체를 구현
 - 자바, C++ 같은 클래스 기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————— 사전 정의의 클래스 기반 객체 생성
 - 객체 생성선 이미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정해져 있으며 그대로 생성
 - 객체 생성 이후 프로퍼티 삭제 추가 불가능
 - JavaScript 프로토타입 기반 OOP ————— 클래스 없이 객체 생성
 - 동적으로 프로퍼티와 메서드 추가 가능
 - 매우 편리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클래스 기반 언어보단 생성과 프로퍼티 접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

따라서 V8 JS엔진에서는 프로퍼티 접근을 위해 동적탐색(dynamic lookup) 대신 히든 클래스 라는 방식을 사용
C++ 객체의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정도의 성능 보장

11.2 객체

1. 변경 가능한 값

- 객체는 변경 가능한 값
- 객체를 할당한 변수가 기억하는 메모리 주소를 통해 메모리에 접근하면 참조 값에 접근하게 된다. ————— 즉, 해당 변수 메모리 값에는 다른 메모리 주소가 들어 있다. 이를 참조 값이라고 한다. ————— 이 참조 값을 통해 객체에 접근한다.
- 객체는 변경이 가능한 값으로 객체를 할당한 변수는 재할당 없이 객체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. ————— 즉, 재할당 없이 프로퍼티를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, 값을 갱신, 삭제할 수 있다. ————— 이때 객체를 할당한 변수의 참조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!!
- 객체가 변경 가능한 값으로 설계된 이유?
 1.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
 2. 객체를 복사해 생성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
- 객체의 구조적 단점에 따른 부작용
 - 객체는 원시값과 다르게 여러 개의 식별자가 하나의 객체를 공유할 수 있다. ————— ** 얕은 복사(shallow copy)와 깊은 복사(deep copy)
 - 얕은 복사 ————— 한 단계까지만 복사 ————— 스프레드 연산자
 - 깊은 복사 ————— 중첩된 객체까지 모두 복사 ————— lodash cloneDeep 이용

2. 참조에 의한 전달

- 여러개의 식별자가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는 것 ————— 예시
- 부작용
 - 어느 한쪽이 프로퍼티 값 변경, 삭제, 추가 등을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!!
- 결국, 자바스크립트에는 참조에 의한 전달은 존재하지 않는다. => 값에 의한 전달만 존재
 - 결국 값에 의한 전달, 참조에 의한 전달 모두 식별자가 기억하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면에서 동일하기 때문
 - 다만,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원시 값이나, 참조 값(메모리 주소)이 아닌지 차이
- 자바스크립트에는 포인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인터가 존재하는 다른 언어의 "참조에 의한 전달"과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자